

■ 지방선거 핫코너



5·18 행사 참석한 강운태 의원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강운태 국회의원이 24일 국립 5·18민주 묘지 추모관에서 열린 5·18 민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윤광장 5·18재단 이사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최원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용섭 '3대 주인론'으로 표심 공략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4일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민이 주인 되는 광주, 정권교체 주역이 되는 광주 민주당원, '위대한 광주 건설'의 주역이 되는 광주시 공직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시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열린 시정을 펼칠 것이며, 광주시 당원들이 2012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광주시와 민주당원의 연대를 강화하는 '개방형 당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시정의 성과를 보고하는 '당원 보고대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농수산진흥공사 설립 필요"

민주당 주승용 의원 24일 "전남의 농수산업은 차별화된 청정 웰빙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수산진흥공사(가칭)'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농수산물들을 생산하는 것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면서 "생산뿐 아니라, 가공·포장·저장·유통·판매(수출포함)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농수산업진흥공사 설립은 일자리와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용지, 산업용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전남개발공사의 규모를 축소, 출자금을 확보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순천 광역·기초의원 후보들 "체육관 경선 안된다"

순천지역 광역·기초의원 선거 출마 후보들이 경선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홍재, 이옥기, 김기태씨 등 광역·기초의원 출마자 11명은 24일 순천시의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도내 시·군의 기초 및 광역의원 경선방식이 당원과 시·군민 여론 조사로 결정됐는데 유일하게 순천만 '대의원 50% 미만, 당원 50% 이상'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시민여론을 배제한 채 지역위원장직이 직접

장악하고 있는 대의원과 당원을 통해 공천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려는 방식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순천도 도내 모든 시·군이 채택한 경선방식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경선방식은 5만명 당원 중 극소수 당원과 100여명의 지역대의원만 체육관에 모아서 경선을 하려는, 지역위원장의 의도대로 실시되는 체육관경선 방식"이라며 "체육관경선은 이미 매수·매직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용도폐기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정종득 "목포시장 출마 예비후보 등록"

정종득 목포시장이 24일 오전 목포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3선에 도전하는 정종득 시장은 회견에서 "고향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결초보은의 각오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를 건설하고자 전심전력을 다 해왔고 앞으로도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당초 4월 중순께 예비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예비후보의 도를 넘는 비방과 흑색선전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처하기 위해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기호 내일 선거사무소 개소

남기호 광양시장 예비후보는 26일 오후 3시 광양시 중동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동남빌딩 1층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남 후보는 3선 광양시의원과 4년간 전남도위원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밝고 행복한 광양'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계획이다. 남 후보는 개소식에서 ▲포스코 연관산업 유치 ▲항만 배후지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산학관 협력 체계 업그레이드 ▲광양읍권과 중마동권 등의 지역균형 발전 ▲이순신대교의 관광상품화 등 광양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과 미래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민준 "나주시 도의원 무소속 출마"

이민준 전 전남도위원이 나주시 제1선거구 도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 전 의원은 24일 최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데 이어, 나주 성북동 나주교회 앞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독선과 오만을 일삼는 민주당을 심판하고 누가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일꾼인지 검증받겠다"면서 "전남 지역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과 무소속 연대를 추진해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민주 동구청장 경선, 유태명-조영복 대결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경선이 다음달 4일 유태명 현 청장과 조영복 전 동구의회 의장 후 후보자 간 대결로 치러진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4일 제3차 선관위회의를 열고 동구청장 후보자 경선 후보 등록을 한 유 청장과 조 전 의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에 따라 두 후보를 상대로 다음달 4일 오후 1시 동구문화센터 4층에서 합동연설회를 갖고 이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투표한 뒤 개표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선관위는 또 경선 방식 50%인 구민여론조사를 위해서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했다.

광주선관위 다문화여성 '선거체험교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에 거주 다문화가족 여성을 대상으로 선거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거체험교실은 25일 광산구를 시작으로 ▲남구(4월6일) ▲동구(4월10일) ▲서구(4월14일) ▲북구(협의중) 순으로 진행되며, 우리나라 선거제도 소개와 1인 8표제 투표 방법 등 모의 투표를 통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권이 있는 결혼이민 여성들을 상대로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 정치·선거에 대한 제도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체험교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우량 "신안군수 무소속 출마"

박우량 신안군수가 오는 6·2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박 군수는 24일 군청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6년 선거에서 신안군민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저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었다"며 "신안군에서는 군수가 정치인이기보다 지역발전을 우선해야하기 때문에 신안군민만을 생각하는 무소속 군수로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원배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조원남slee@



檢 "제주서 3차례 무료 골프" 증거 제출

韓변호인측 "골프 안쳤다...비용도 다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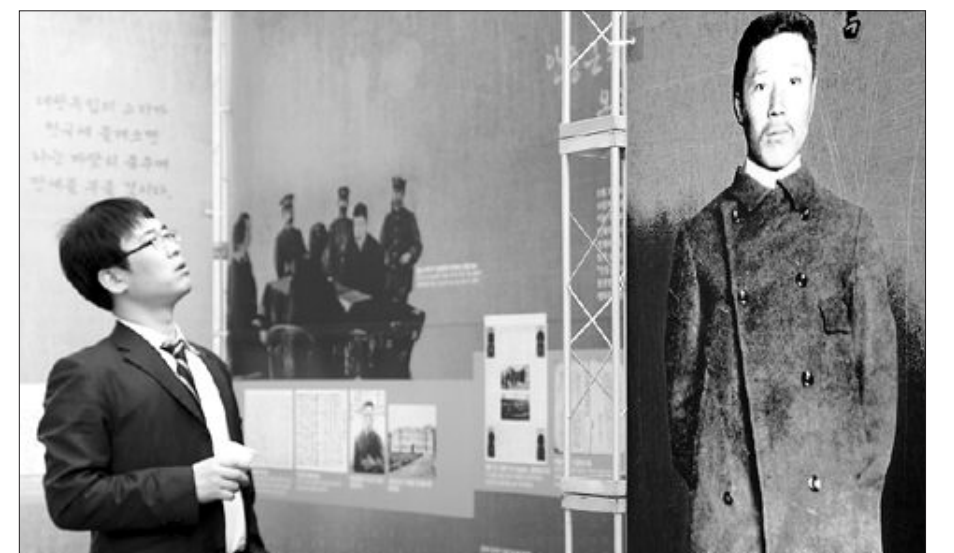
'한명숙 재판' 진실공방 가열

한명숙 전 총리가 광영육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회원권으로 3차례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검찰이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이 나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악의적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는 광씨로부터 5만 달러 뿐 아니라 단돈 1원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광씨가 보유한 제주의 고급골프빌리지를 29일간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광씨가 소유한 L골프빌리지에 2008년 11~12월 3주동안 장기 투숙했고 2009년 7~8월에도 8일간 숙박했다. 이 골프빌리지의 숙박비는 하루 66만원이며, 한 전 총리 한번도 숙박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또 이 기간에 3차례 골프를 쳤으며 한번은 광씨가 비용을 대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는 숙박기간에 광씨의

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았을 수 있다"며 "한 전 총리가 별 부담없이 광씨로부터 돈을 받은 만큼 친분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명숙 공대위'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한 전 총리가 책을 쓰기 위해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소개로 숙박을 한 적은 있다"며 "이 기간 휴가차 내려온 동생 부부와 함께 지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대위 핵심인사는 "한 전 총리가 자연인 신분이던 2008년 말 자서전 준비로 20일간 머물렀고 2009년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장을 치른 뒤 잠시 요양했다"며 "동생 부부가 라운딩할 때 함께 따라다니는 적은 있지만 골프를 직접 치진 않았고 골프 비용도 다 치렀기 때문에 대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기 어렵게 되자 흡입이라도 내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런 형태의 정치적 수사, 흠집내기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이 이성을 찾고 문제의 본질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특별기획전에서 한 시민이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중근 의사 유해' 한·중·일 공동 발굴 추진

정부는 올해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안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합동유해발굴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오는 5월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를 공식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그동안 일본, 중국을 상대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따라서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올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안 의사 유해발굴을 위한 3국간 협력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으로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3국 외교장관회담 의제화 여부를 본격 협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 large advertisement for 'Kwangju' (광주) featuring a stylized tree graphic and text promoting local products and services. The text includes 'Kwangju' and 'Kwangju' in large characters, along with smaller text about local products and services.